2026년 11월호(제 263호)

소중한사람들



단풍

사랑 끝에 생긴 울음
사랑처럼 슬픈 얼굴
그 얼굴을
나는 결코 보내지 못한다.

삶의 이유였기에...
내 몸의 전부였기에...

그러나
이제는 무기워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한다.

당신이 떨어진 자리마다
내년 봄을 마련한다.

그럴 때
나는 마지막 영혼을 불사른다.
나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시/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그분이 OK할 때까지

나는 일 년에 서너 번씩 내 아들 앤드류를 보러 시카고에 갔다. 아들은 얇은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내 앞에 앉는다.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다른 면회자들은 10분이면 거의 다 면회가 끝난다.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들과 바깥세상에 있는 가족들은 공유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잘 있나 얼굴만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앤드류와 나의 면회는 제한 시간이 다 되도록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정해진 점심시간을 놓치면 네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점심시간 전에 끝내자'고 하면 앤드류는 '밥을 먹는 것보다 어머니와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고 점심을 거른다.

나는 앤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앤드류야! 너는 맹수들의 동굴 같은 이 감옥에서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겠니? 나는 너를 이곳에 두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 참 이상하지요. 나는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살지만 조금도 좁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요. 바깥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철창에 가둔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갇혀 살고 있잖아요. 감옥의 두 평을 무한정한 우주처럼 넓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한정한 우주처럼 넓은 세상에서 살면서 마치 두 평의 감옥처럼 좁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어머니!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를 따라 바깥으로 곧장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업고 나뭇잎이 속살대는 숲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매일 아침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인가요? 제가 바깥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는 날이 오늘인가요?' 그러면 이내 '아니다!' 하시며 주님이 고개를 저으세요. 저는 '아! 주님 그럼 내일이군요!' 이렇게 금방 바꿉니다. 아침마다 이 물음을 주님께 묻는 것은 내일이면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제 마음에 믿게 해주고 저의 감옥 생활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설레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이 감옥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주님이 OK할 때까지 잘 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다 없어졌지만 주님은 혈통으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의 아버지 김한철 장로님은 지금 십 년째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순 살이셨던 아버지는 지금 일흔 살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 못난 아들을 면회 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부터 이곳 미국까지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 부모가 자식을 찾아다닌단 말입니까?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찾고 모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주님이 OK할 때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찾아갈 수 있도록…."

앤드류는 폰티악 교도소 안에서 많은 죄수들에게 전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살지 말도록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앤드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전도해야 하는 각별한 사명을 띠고 감옥에 있으니 그가 10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는 일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나에게 항의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단 한마디였다.

"네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감옥에 갇혀 100년을 살아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였다.

만약 앤드류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통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갖는 사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심을 나타내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앤드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이 어미는 그저 쉴 새 없이 기도할 뿐이다. 주님이 내 아들에게 감옥소에서 출감할 수 있도록 OK 사인을 해 달라고….

다시 간수의 손에 이끌려 감옥으로 돌아가는 앤드류의 얇은 바지 끝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겨울 이후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앤드류의 얇은 바지는 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고 펄럭이고 있다.

글/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루아흐 오카리나 팀의 활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오카리나 소리가 들려옵니다. 폐암 4기 환우인 배○○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루아흐 오카리나 팀'의 연습 소리입니다. 루아흐는 히브리어로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팀 이름을 어쩌면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이 모임은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무개 권사님의 은사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팔이 부종으로 부어오르는 가운데에도 환우들에게 오카리나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권사님은 소천하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 배 권사님이 팀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런 배 권사님이 이번에 큰일을 하나 저지르셨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에 가서 연주도 하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었을까요? 팀원들은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맞춰 입고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가 오카리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제 책도 가져가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환우들이 찬양을 마치고 돌아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제대 후 부르심을 받았기에, 신학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귀했습니다. 채플실 문고리만 잡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총신대 첫 채플 날, 저는 감히 학생들 사이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 가장 뒷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음악과 학생들이 섬기는 오케스트라가 예배를 도왔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개강 수련회 예배를 드리며 며칠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자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채플에서 출석 체크만 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보였고, 채플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시고 공부할 귀한 기회도 주셨건만 이렇게 헛되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사실 저는 음악 전공자도 아니니 찬양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을 꾸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으로 훌륭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가장 좋은 음악일 때 찬양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음악적인 것에 고집을 피울수록 같이 예배하려는 친구들이 지쳐갔습니다.
그 무렵 제가 존경하던 박○○ 선교사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늘 악기를 사는 문제로만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만 있으면 다 된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배들이 제가 만든 찬양팀을 이어 운영하며 저를 다시 예배 인도자로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후배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습도 했고 달란트도 많은 친구들이라 음악적 완성도가 정말 높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을 건성으로 하는 예배자들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리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도 예배자들이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악기도 중요하고, 음악이 잘 되도록 정성껏 연습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예배 후 저는 찬양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며 여러 목회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세우실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해지는지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의 예배자들은 그 어떤 예배 현장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폐암 때문에 숨을 길게 쉬기 어렵고, 진통제 기운으로 정신이 흐릿해질 때도 있지만, 환우들의 진심 어린 예배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참됨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며 사모했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환우들도 저처럼 큰 질병의 연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환우들이 이제는 다른 요양병원을 찾아가 함께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 이성일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로그인데이예배


▲ 미술시간


▲ 미용봉사


▲ 산에서 드리는 기도


▲ 산정호수야외예배


▲ 산정호수야외예배


▲ 산정호수야외예배


▲ 새신자성경공부


▲ 예수가족교회청소봉사


▲ 오카리나 연습중



▲ 오카리나로 복음전한 현장


▲ 청소봉사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1. 배O경(폐암4기) - 유전자변이 찾게 하시고 좋은 항암제 투약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편안하고 긴 호흡으로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숙면하기를 기도합니다.
2. 임O국(임파절암4기) - 불면증 8년, 목, 허리, 고관절, 무릎, 손발저림과 마비증상, 식은땀, 가려움증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표적항암제보다 더 좋은 항암제로 치료하게 하옵소서
3. 이O진(난소암4기,림프전이) - 표적항암제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4. 최O덕(방광암) - 방광암 재발 전이 없이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하소서
5. 신O달(췌장암4기) - 9/5일 CT결과 크기에 별차이는 없지만 더 커지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며 소사철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6. 박O숙(유방암4기) - 2005년 유방암 수술 후 18년 만에 뼈, 피부, 임파선, 목으로 전이되어 치료받고 있는 연약한 저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치료과정 함께하사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7. 진O봉(임파선 종양) - 대장암에서 시작했던 암이 임파선으로 두 번이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사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 진O순(담관암) - 지금 나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9. 이O옥(유방암,흉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주 3회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속히 나타나 피부의 병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10. 남O자(폐암) - 답답한 가슴과 목이 시원케 되고, 귀 통증이 치료되어 편안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며, 시리고 저린 발목과 팔꿈치 골프 엘보와 부정맥도 치료되어서 일상생활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11. 유O주(자궁경부암 4기) - 뼈 전이로 인한 치료를 받고 치료의 효과는 치료 후인 11/4일부터 2 주안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어 뼈로 인한 통증과 암을 사멸시킴을 믿고 감사합니다
12. 박O호(전립선암) - 1주일에 월,수,금 알로페론으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작용은 감소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 김O우(간암) - 하나님 아버지 간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힘과 평안을 주옵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14. 윤O경(폐암) - 더 이상 폐암 4기 병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일하신 하나님, 항암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되길 소원하며,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15. 이O학(대장암) - 2026년 1월 대장암 수술 후 12회 항암을 마쳤는데 전이(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항암의 과정을 잘 이기고, 잘 감당 할 수 있게 하옵소서
16. 김O덕(방광암, 복막, 골반전이) - 새로운 항암 연허투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 잘 견디고 승리케하신 것처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 정O순(유방암) - 젬로다와 도세탁셀의 부작용으로 림프부종과 손발 물집 생김, 올랑거림, 무기력, 어지러움등은 최소화 하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 10/24일 pet-ct 찍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약을 오래 쓸 수 있게 하옵소서
18. 김O식(췌장암,전립선암) - 췌장암은 2/22일 검사를 합니다. 현재 경구용 엑스탄디로 항암 하는데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며, 전립선 암은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경구용 항암을 진행합니다. 부작용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9. 이O숙(췌장암) - 수술후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항암치료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혼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 김O희(난소암) - 6개월간의 항암과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 수치가 정상이 되고 CT도 깨끗하게 결과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항암 부작용으로 생긴 손, 발 저림과 피부발진, 가려움증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21. 양O순(대장암4기,폐,간,고관절전이) - 대장암 4기로 폐와 간에 전이 되었고 작년 5월에 대장암 수술 후 고관절로 암이 전이되어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건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투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facebook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YouTub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2026년 10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민숙(50,000) 박춘자(50,000) 반선영(100,000) 임종국(700,000) 전두희(100,000) 최정미(100,000)

●목적헌금●

조은래(6,619,625)

●천사헌금●

진대봉(1,000,000) 김정희(1,000,000) 김성희(1,000,000) 김경남(1,000,000))

●십일조●

강모승(60,000) 김홍덕(80,000) 박갑진(73,000) 박용범(460,000) 배윤경(77,000) 변영미(500,000) 심윤화(260,000) 윤두경(110,000)
이성일(300,000) 이혜옥(100,000) 임종국(300,000) 최영자(140,000) 최은희(200,000)

●주일헌금●

김병식(40,000)

●감사헌금●

SUNGHAIS(100,000) 강금숙(10,000) 강신영(50,000) 강원봉(50,000) 고선하(30,000) 고은미,박찬욱(300,000) 구민정(20,000) 권점옥(100,000)
김영석(50,000) 김병식(900,000) 김보영(100,000) 김상옥(50,000) 김선영(300,000) 김순환(50,000) 김연순(1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영미(50,000) 김외숙(100,000) 김유미(30,000) 김정희(40,000) 김태우(400,000) 김혜영(50,000) 김홍덕(900,000)
남순자(200,000) 남승범(100,000) 노현숙(50,000) 류병완(100,000) 무명(20,000) 문병숙(20,000) 문승복(700,000) 박경숙(130,000)
박광숙(100,000) 박선인(230,000) 박선주(100,000) 박영호(110,000) 박예숙(378,000) 박재숙(10,000) 박정숙(160,000) 박진숙(20,000)
방연자(70,000) 배윤경(500,000) 배은옥(100,000) 백인아(1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화영(100,000) 소한태(10,000)
송영수(60,000) 신영달(140,000) 신정용(200,000) 심태영(100,000) 양경임(50,000) 양희순(410,000) 연영희(10,000) 염애석(10,000)
오미경(100,000) 오분순(60,000) 오임순(20,000) 유미주(100,000) 윤두경(70,000) 이금숙(100,000) 이성숙(20,000) 이성일(500,000)
이양복(10,000) 이영숙(50,000) 이은숙(1,250,000) 이지현(50,000) 이진학(100,000) 이혜옥(450,000) 이희진,이희정(30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종국(1,000,000) 전대진(50,000) 전선희(30,000) 정동익(30,000) 정숙(50,000) 정영신(300,000) 정종순(350,000)
정태웅(200,000) 조옥선(20,000) 조정덕(100,000) 조홍제(298,010) 진대봉(140,000) 진봉순(170,000) 최무순(100,000) 최승표(50,000)
최영자(70,000) 최영희(10,000) 최은선(50,000) 최은영(50,000) 최임덕(300,000) 최임수(10,000) 최혜령(100,000) 한창식(400,000)
현성원(50,000) 황영자(200,000) 황정숙(26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권오성의원(100,000) 네모우산(50,000) 루오핏제리아(5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소망교회사랑나눔부(300,000) 태안살롬교회(100,000)

●정기후원금(CMS)●

강지수(10,000) 공은영(3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예중(30,000) 김완돈(30,000) 김윤집(30,000) 김 조(15,000) 김진열(5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효진(100,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희(100,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완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성인숙(250,000) 송연숙(50,000) 송필례(10,000) 양용석(30,000) 양윤정(100,000) 오선희(50,000) 오인덕(10,000)
유미형(10,000) 윤인초(10,000) 윤종순(30,000) 이금순(50,000) 이미진(10,000) 이성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영숙(50,000) 이은숙(10,000) 이재화(3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귀례(1,000,000)
임성숙(30,000) 임은교(10,000) 장선옥(1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은경(20,000) 정일금(1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숙(10,000) 조영실(40,000)
조재성(10,000) 최신숙(10,000) 최여주(5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혜원(10,000) 한선주(20,000)
허경순(5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황춘희(20,000)

청평힐링센터 2026년 10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6,619,625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282,154
천사헌금	4,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913,008
확장소망헌금	1,100,000	식자재구입비	7,652,820
십일조	2,660,000	전기요금	2,922,110
감사헌금	15,806,010	안전관리비	441,000
CMS헌금	3,935,000	수리비	680,500
주일헌금	100,000	집기구입비	1,167,350
기관후원	1,650,000	급여인건비	18,706,040
		우편발송비	264,210
		합산보험료	1,496,170
금월 수입 합계	35,870,635	지출 총액	36,525,362
전월 이월금	36,233,006		
총 수입 합계	72,103,641	금월 잔액	35,578,279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희(50,000) 전두희(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2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재정(80,000) 박승호(100,000) 오분순(200,000) 올산오복가정교회(100,000) 이혜옥(2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00,000)
3월: 임종국(1,300,000) 최영자(300,000) 오분순(300,000) 남중범(20,000) 충성(100,000) 확장헌금(50,000) 김병식(100,000) 전두희(50,000) 신은철(20,000) 최정미(100,000)
4월: 올산오복가정교회(100,000) 경주한빛교회(50,000) 오분순(500,000) 강정운(20,000) 충성(100,000) 이혜옥,송기승(172,000) 김병식(1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00,000)
5월: 경주한빛교회(50,000) 김병식(100,000) 김점숙(50,000) 오분순(500,000) 올산오복가정교회(100,000) 윤경선(5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전주응원교회(250,000) 주님께감사!!(10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00,000)
6월: 김병식(100,000) 오분순(100,000) 임종국(1,500,000) 전두희(50,000) 최애진(50,000) 최정미(100,000)
7월: 경주한빛교회(50,000) 김병식(100,000) 소재길(50,000) 올산오복가정교회(100,000) 유병희(1,0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애진(150,000) 최정미(100,000)
8월: 경주한빛교회(50,000) 김민숙(50,000) 김병식(1,100,000) 신은철(20,000) 올산오복가정교회(100,000) 임종국(800,000) 전두희(50,000) 최영자(100,000) 최정미(100,000)
9월: 박춘자(50,000) 반선영(50,000) 오분순(100,000) 임종국(500,000) 장혜란(100,000) 최정미(100,000)
10월: 김민숙(50,000) 박춘자(50,000) 반선영(100,000) 임종국(700,000) 전두희(100,000) 최정미(100,000)

*10월말 현재 총, 200,402,44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6년 10월 씨앗헌금 후원: 김행심(10,000) 이성숙(20,000) 이순미(50,000) 홍옥선(100,000)

2026년 10월 소나무헌금 지출: 남○자(677,700) 이○옥(572,74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7195-3045 이성일 목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0월 가입자 명단 (4명)

669 진OO 670 김정희 671 김성희 672 김경남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옥	2	최미경	3	최명자	4	유재분	5	이명구	6	김수영	7	송종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월봉
11	박철홍	12	정동경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은희	16	박정례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지은숙	20	성기현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경희	24	박순희	25	양윤례	26	한은혁	27	이순자	28	장은숙	29	권미고	30	송광수
31	강옥상	32	윤혜원	33	전동철	34	이혜란	35	전미라	36	김정인	37	양승복	38	정혜순	39	이춘자	40	오병철
41	최수지	42	이상덕	43	송영옥	44	최현자	45	장상영	46	정미혜	47	문혁자	48	정병옥	49	정해랑	50	최수경
51	윤현	52	최현덕	53	최유순	54	최혜은	55	박현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서재선	60	이혜경
61	이용영	62	심향	63	이상수	64	박혜숙	65	이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현년	69	천우고	70	김혜련
71	김해정	72	구남미	73	이춘경	74	정동명	75	김영숙	76	이주열	77	변현명	78	배정희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은순	82	이현순	83	신현란	84	정순자	85	정해랑	86	박종정	87	박종정	88	최현동	89	김미희	90	신동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정주	97	김현숙	98	우명	99	유성진	100	성수현
101	홍현숙	102	홍현순	103	이혜경	104	홍정대	105	홍현동	106	민현태	107	김현숙	108	고은진	109	김윤선	110	계천년합
111	고혜사랑	112	이미리김	113	이현순	116	도문식	117	김현미	118	한윤희	119	유성진	120	권혜도	121	김현숙	122	정성희
123	박주진	124	이현니	125	이윤숙	126	이현자	127	김현숙	128	이미정	129	조정석	130	박지선	131	김현희	132	박순철
133	한정순	134	김태련	135	박혜숙	136	양수진	137	심미복	138	김현숙	139	오정자	140	이혜숙	141	김혜미	142	전미라
143	조혜숙	144	이현숙	145	박혜진	146	민현니	147	이근형	148	윤정진	149	윤은주	150	최혜원	151	정현희정	152	김현년
153	안현희	154	김현숙	155	문혜은	156	임순미	157	고현복	158	김미희	159	김나란	160	박정애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혜진	165	이혜숙	166	이혜희	167	이동진	168	동동준	169	김혜란	170	유선영	171	이은순	172	황옥남
173	김혜선	174	이현준	175	박정근	176	김은림	177	신진경	178	김 정	179	이은구	180	문현연	181	김현숙	182	김현진
183	문기현	184	문지수	185	이미정	186	이은구	187	송혜준	188	이화운	189	정문숙	190	김은혜	191	이종복	192	이혜정
193	유경현	194	이은구	195	이동원	196	현성준	197	박은순	198	이현숙	199	윤미숙	200	최은현	201	김현년	202	김혜미
203	정승태	204	정현신	205	박현미	206	정두경	207	오재희	208	H	209	박성문	210	홍지윤	211	이현숙	212	권은미
213	우명	214	황은진	215	박현경	216	유민선	217	위미옥서대문	218	이은주	219	박은문	220	도현철	221	박순철	222	이시은
223	정은진	224	김은정	225	김국진	226	윤미혜	227	문민정혜	228	김혜숙	229	김순천	230	정은숙	231	김숙희	232	남궁혁
233	남기현	234	남혜원	235	김현자	236	박선숙	237	오주석	238	노은순	239	이시혜	240	최혜경	241	임계숙	242	이승미
243	연기홍	244	김미연	245	김성원	246	신태평	247	홍석연	248	이인순	249	정혜실	250	한종석	251	한정숙	252	김혜원
253	박정희	254	한경숙	255	이기홍	256	정은영	257	이우주	258	이주연	259	최현호	260	김미옥	261	김동수	262	조재형
263	이선	264	최현철	265	정승태	266	이혜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윤동주	270	김혜선	271	송문희	272	윤동주
273	김혜선	274	최현미	275	김현군	276	김동준	277	김주희	278	이미경	279	신혜니	280	이혜미	281	한은혜	282	이혜숙
283	정현미	284	이주연	285	김승정	286	홍혜녀	287	지현호	288	정현미	289	이미숙	290	조미나	291	이혜원	292	박혜현
293	정승태	294	정승태	295	김현주	296	김명주	297	김혜숙	298	이성희	299	김주선	300	이은정	301	김주형	302	권미자
303	정현철	304	조미나	305	김주연	306	이은다희	307	곽진은	308	곽은경도심	309	권숙송	310	방현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정은	314	박혜은	315	이미리	316	한은희	317	최혜석	318	정복숙	319	김미진	320	최혜은	321	이혜순	322	유승희
323	정현철	324	이태형	325	조고미4	326	김은주	327	김미주	328	최혜은	329	이혜선	330	이경옥	331	민혜선	332	정현미
333	이은경	334	유성미	335	이상은	336	최현철	337	유지혜	338	정현철	339	진현철	340	정현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홍은경	344	정현미	345	이송은	346	김진숙	347	정현니	348	최미영	349	정숙희	350	유성진	351	김현실	352	유혜은
353	유은수	354	한은혜	355	윤종주	356	최은은	357	전나경	358	김혜란	359	정현미	360	도현철	361	서현미	362	정현신
363	오병훈	364	정현영	365	권은주	366	박미희	367	정현신	368	강서은	369	정현신	370	송현석	371	정현미	372	정진숙
373	최혜경	374	서혜원	375	노미현주	376	강미선	377	정현숙	378	허태원대표	379	후원금	380	정미옥	381	정지욱	382	정혜숙
383	김혜은	384	임지현	385	정현신	386	권은숙	387	김혜원	388	박은은	389	유동숙	390	박혜원	391	박지현	392	심지민
393	김혜인지역장	394	이은선	395	서미원	396	정현호	397	김순옥	398	도현철	399	도현철	400	김현미	401	변영복	402	이은숙
403	이은숙	404	김순원	405	이현실	406	이현숙	407	한수정	408	정현미	409	이은미	410	민수희	411	조고혜	412	윤은희
413	오현석	414	이혜상	415	이미혜	416	이혜숙	417	박호기	418	김현정	419	지미정	420	유민재	421	김은순	422	박현희
423	황수진	424	서은혜	425	신현수	426	이은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현신	430	김금녀	431	정은미	432	박호자
433	박경혜	434	임지현	435	최순은	436	김은미	437	서미주	438	김은미	439	송현숙	440	김은미	441	구혜주	442	이은남
443	이서주	444	김은미	445	송미숙	446	김은주	447	이은주	448	이은숙	449	김은미	450	김혜은	451	이은혜	452	이은미
453	홍서희	454	권미라	455	김현미	456	김수진	457	송현석	458	송현숙	459	안현희	460	권미라	461	김현민	462	김서연
463	유명	464	김혜은	465	정현희	466	황현미	467	김미우	468	이은희	469	김미희	470	양복순	471	현현희	472	박은미
473	김은미	474	유현희	475	박은미	476	김현희	477	나윤주	478	오소영	479	유현희	480	이혜숙	481	최유은	482	이은은
483	김은수	484	이은미	485	박호자	486	안현희	487	서미은	488	나경희	489	정은형	490	변영복	491	김현미	492	정현숙
493	정현미	494	정현미	495	이경희	496	이은희	497	이은희	498	김주연	499	황현미	500	정현미	501	김현미	502	김은미
503	김현실	504	박은미	505	이영도	506	유은옥	507	박혜희	508	정은형	509	한수정	510	안은미	511	김은수	512	손은숙
513	박서진	514	김혜숙	515	김소정	516	서종석	517	이미희	518	정은순	519	이영희	520	전선희	521	권미정	522	권혜도
523	이은미	524	이은희	525	정혜랑	526	이은순	527	윤은미	528	최은선	529	이혜미	530	오승규	531	김현진	532	손미나
533	이영미	534	김선은	535	정서나	536	박은규	537	홍서미	538	최현미	539	이서은	540	황은진	541	이혜정	542	김은희
543	이은미	544	이혜리	545	문혜교회	546	윤미정	547	김서정	548	홍수선	549	남현석	550	황유진	551	김현희	552	윤미혜
553	김은금	554	오현순	555	임종국	556	김갑희	557	양현근	558	김현진	559	오정선	560	김혜옥	561	김서정	562	유지수
563	박정은	564	김은미	565	임재경	566	이혜희	567	김서정	568	김미수	569	서현숙	570	서현숙	571	임지혜	572	서현숙
573	최은숙	574	서승국	575	김서정	576	김미숙	577	최지연	578	전혜정	579	김현순	580	김서정	581	임지혜	582	구숙희
583	서현숙	584	임종국	585	이혜미	586	김은금	587	김서정	588	서현숙	589	윤은주	590	박미주	591	한은숙	592	추종석
593	송영수	594	박현선	595	이은희	596	박현미	597	김은금	598	서현숙	599	박현선	600	조숙	601	이혜정	602	김은순
603	조선영	604	권은영	605	김혜정	606	계은희	607	김영옥	608	박정미	609	이은숙	610	서현숙	611	배은옥	612	박현선
613	박영선	614	박정자	615	정영숙	616	정지영	617	이은은	618	정혜자	619	황수진	620	황유진	621	윤영석	622	윤지은
623	김미	624	현혜자	625	현대수	626	정혜복회장	627	한수희미	628	현숙은	629	한진아	630	양인자	631	장정희	632	김미숙
633	김혜미	634	김영수,천미진	635	권은대	636	김서진	637	김혜은	638	전정옥	639	김서영	640	정혜은	641	박은숙	642	신은미
643	최혜은	644	이서진	645	최혜정	646	정순례	647	문성복	648	남은자	649	이은순	650	김명식	651	정혜은	652	박지현
653	조주영	654	유미주	655	김기홍	656	유현정	657	이은숙	658	손혜숙,김용수	659	백선숙	660	전고혜	661	박소유	662	박지윤
663	박정숙	664	신현철	665	이은	666	이혜미	667	이은은	668	김지애	669	진OO	670	김정희	671	김성희	672	김경남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싸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1. 김○옥 (3일이용)

도심에선 맛볼 수 없는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가 온 몸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된 이곳에서 깔끔한 숙소와 사랑가득 풍성한 식사로 대접만 받았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경건의 성경통독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환우들과의 체조와 산책, 모두가 함께 드리는 낮 예배와 선포하는 중보기도, 기쁨의 저녁 예배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황○숙(6일이용)

하루 2회의 예배와 중보기도시간은 뜨겁고 간절한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고 세끼 식사는 정갈하고 영양 듬뿍, 맛까지 매끼 먹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까지 매일 잔치였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맑은 공기,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던 별들, 깊어가는 가을날 리트릿센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갑니다. 환우들과 산속 길을 걸으며 나눴던 신앙이야기와 투병경험, 그리고 돗자리 깔고 앉아 찬양 부르고 기도했던 일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오○순(3일이용)

작년 이맘때쯤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 후, 1년 만에 온 리트릿 센터에서 기도와 예배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세끼의 식사와 포근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주시고 그리웠던 청평의 공기와 시냇물가, 무엇보다 라이브로 듣고 싶었던 목사님의 예배,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반성도 하고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4.박○숙(5일이용)

며칠 동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환우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어주실 때 평온함을,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환우분들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정욱 사모님 하루속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 계획하시는 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5.박○숙(5일이용)

소중한분들과 함께한 며칠 동안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 덕분에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쉬다 갑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매일의 삶에 기쁜과 편안함이 함께하시길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6.최○덕(3일이용)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주님이 큰 팔을 버리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시간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깊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과 식사시간에 나오는 맛난 최상의 음식들은 암 환우들을 위해 세심하게 식단을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정겨운 배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복음전파와 영육을 치료케 하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중국, 북한, 러시아 선교편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계절을 따라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BD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체들이 있음에, 또 러시아로 방문하겠다는 그들의 희망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매화꽃이 피듯이 여전히 BD인들과 접촉점을 주신 하나님께 더 믿음을 두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로 오는 길에 V도시를 들렀습니다. 무작정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길 기도했는데, 처음엔 새로운 복무원만 있었으나 나중에 안주인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남자 주인도 늦은 식사를 함께하며 저와 교제하고 연락처를 나누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복무원과 주인 부부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지난 여름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향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24일 오후 9시경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재입국한 후 거주를 위한 절차들은 매번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그중에도 좋은 위치의 스튜디오 타입 호스텔에 숙소를 구하게 해 주신 동역자님의 중보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명의 학생들이 와서 스비예따를 위한 생일 파티를 저희 방에서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집을 못 구해 제이슨이 주로 비어 있는 자기 집을 사용하도록 열쇠를 맡겼습니다. 사업이 잘돼서 제이슨은 모스크바에 주로 거주합니다. 제이슨을 통해 그의 직원 '삐'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현지 사역을 분석하며 씨름할 때, 그레이스에게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주께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제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도록 도우십니다.
1. 베드로와의 나눔과 일터 사역
최근 베드로와의 나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사, 그는 자신의 집을 구매했고 리모델링하여 11월에 이사합니다. 현재 그는 BD에서 온 노동자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BD 노동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50명을 이끄는 BD 회사의 리더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협력할 즈음에 그 회사의 리더에게 몇 가지 조건성 사전 당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①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②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거나 노래를 들려주면 안 된다.
③ 한국 사람과의 만남은 절대 안 된다. (여기엔 베드로도 한국 사람과의 교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차량으로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며 차 안에 조용히 찬양을 틀고 있답니다. 저희는 기도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주 금요일 중보 시간을 열심히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BD 노동자 3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께서 이 일에 은혜를 부으시고 건설 현장이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며, 그 노동자들이 가족 구원과 제자화 운동의 일꾼들이 되길 중보하여 주십시오.
2. 보리스와 나타샤의 사역 확장
보리스와 나타샤의 일을 연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타샤는 109명의 BD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벌써 문자가 왔었지만 아무 응답을 못 했는데, 3주 휴가를 나온 그녀가 흥분하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통해 인원이 109명임을 알았고, 대표와 통역원 2명이 러시아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나타샤가 BD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보리스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이 연장되도록 기도를 부탁할 때엔 자못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나, 여전히 믿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심령을 갖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3. 추수감사절 모임과 내년 수련회 계획
추수감사절 무렵 작은 파티(11월 27일과 29일)를 계획합니다. 초대할 사람들을 잘 선별하며, 초대받은 자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 밭이 되도록 중보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라는 주제로 내년 7월 5일~9일까지 제주도에서 중국 성도들과 그 가족들 중심의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번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임을 기도 중에 저도 느꼈지만, 다른 분들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탈북민 가족 몇 가정이 참석하기로 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중국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과 헌신으로 불신 가족들을 초대하며, 불신 가족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씨아오 펑 자매가 넷째 아이를 순산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소서.
2. 지난 7월 V도시에서 주님을 영접한 중국 유학생 두 명이 양육자와의 만남을 희피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주변에 BD가 있는 중국인 남학생을 아양이 접촉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오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3. 중국인 식당 주인 부부가 주님을 신실하게 알아가며 믿게 되도록, 그들을 통한 BD 쪽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 주소서.
4. 베드로와 나타샤가 BD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5. 아프리카인 Freeba와 지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소서.
6. 추수감사절 파티에 초대할 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7. 내년 7월 5~9일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지혜와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석하는 불신 가족들이 구원 얻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며, 탈나라 지체들이 BD 선교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동역자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강건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 되시길 중보하면서,

강 건(다니엘)과 김은실(그레이스) 드림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성일, 이주희, 김명옥, 박종수,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상훈, 최영화
나눔 품목: 단팥빵, 커피(김명옥 후원), 육개장사발면(무명, 조이풀교회 후원),
생수, 식료품(여수현 후원)








소중한사람들 교회


▲ 서부침례교회, 소망교회사회봉사부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조이어스교회


▲ 에클레시아


▲ 점심식사


▲ 함께올래, 장성교회


▲ 개인봉사자


▲ 한소망교회, 서빙고온누리교회


▲ 세빛소


▲ CBS레이디스싱어즈


▲ 강동온누리교회


▲ 모래내교회


▲ 개인봉사자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이화유치원


▲ 조이풀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9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서부침례교회(3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3일), 이대부속초등교학부모성경통독팀(6일,27일), 조이어스교회(8일), 에클레시아(10일), 함께올래(17일), 한소망교회(20일), 서빙고온누리교회(20일), 세빛소(21일), CBS레이디스싱어즈(22일), 강동온누리교회(23일), 모래내교회(24일), 장성교회전도팀(24일), 이화유치원(17일), 조이풀교회(24일)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권미조, 김영옥, 김진숙, 박대근, 박봉희, 박은순, 박진희, 송경옥,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은영, 이향자, 임윤엽, 전두희, 최경희, 최금련, 홍은영,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상훈, 홍지영, 기정아, 이지영, 허청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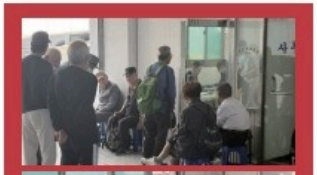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성웅,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범주, 주일 이성일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몸과 영혼 치유 사역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 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사전 예약 필요 없이 토요일에 오면 누구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10월 10일
13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30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132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0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하22장-열왕기상3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사람들 서울 노숙인 사역**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2. **소중한사람들 청평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얀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이혜옥, 배윤경, 김홍덕, 임종국, 이희진, 정종순, 김병식, 남순자, 이은숙, 유미주, 박영호, 최임덕, 김태우, 박예숙, 김정희, 신영달, 양희순, 진대봉, 진봉순, 고찬영, 윤두경, 이진학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구재온,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열리, 김지연, 허미옥, 이윤주,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나일주, 이광미, 한치웅, 정경희, 황우진, 김수진,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권오성, 유명희, 정재윤, 서종열, 조일구, 박지현, 김예중, 최애진, 백선순, 최은영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 스위스 노바티스에서 만든 근육위축증 치료 신약 ITvisma주사 가격이 내려가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성경통독팀,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이싹회42기
* 13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2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해 주신 이미용 봉사팀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신 서부침례교회, 에클레시아, CBS레이디스싱어즈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물 나눔을 준비해 주신 개인 봉사자 * 맛있는 무청김치를 김장해주신 개인봉사자
* 후원금을 전달해주신 세빛소 * 전도하신 장성교회 전도1,2팀

모두 감사합니다


▲ 서부침례교회 특송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러벨작업 지원


▲ 에클레시아 특송


▲ 소중한찬양단 금요예배찬양인도


▲ 이싹회42기 소식지작업 지원


▲ 소중한찬양단


▲ 장성교회 전도1팀


▲ 세빛소 후원금전달


▲ CBS레이디스싱어즈


▲ 장성교회 2차전도팀


▲ 무청김치 김장


▲ 이미용봉사

후원물품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10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2일	김민정	빵	3박스	2일	나눔	노숙인
3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	디지털믹서	1개	3일~	비치	예배당
3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	70인치TV	1개	3일~	비치	예배당
3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	설교용마이크	1개	3일~	비치	예배당
3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	보조스피커	2개	3일~	비치	예배당
5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	백설기	2박스	5일	나눔	노숙인
6일	무명	육개장사발면	5박스	11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8일	이대부초찬양팀	뉴케어	96개	13일	나눔	노숙인
8일	조이어스교회	바나나	2박스	10일	급식	노숙인
8일	조수연	빵	2박스	11일	나눔	노숙인
10일	㈜노아	돼지고기	6박스	11일~	급식	노숙인
10일	에클레시아	바나나	2박스	10일	나눔	노숙인
10일	에클레시아	김	2박스	10일~	급식	노숙인
10일	김명옥	커피	6박스	매주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12일	구세군	라이스데이	30박스	18, 25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12일	구세군	김치찌개	2박스	13일	급식	노숙인
13일	무명	꽁치통조림	2박스	14일~	급식	노숙인
15일	구세군	치킨카츠	3박스	16일	급식	노숙인
16일	이소영	파프리카	1박스	17일~	급식	노숙인
16일	박명자	빵	3박스	16일	나눔	노숙인
16일	킴벗어행사	잡곡	1박스	17일~	급식	노숙인, 청평힐링센터
17일	윤귀선	소금	2포	18일~	급식	노숙인
19일	홍기성	옷	1박스	20일~	나눔	노숙인
20일	김마리	쌀	1박스	21일~	급식	노숙인
21일	여수현	식료품	15박스	22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
22일	CBS레이디스싱어즈	이삭토스트	100개	22일	나눔	노숙인
22일	CBS레이디스싱어즈	음료수	2박스	22일	나눔	노숙인
22일	㈜하나프라임	소고기	3박스	23일~	급식	노숙인
23일	서은주	빵	3박스	25일	나눔	노숙인
28일	무명	햅쌀	2kg	29일~	급식	노숙인
28일	김현숙	무청	5박스	29일~	급식	노숙인, 봉사자식사
30일	예수향기교회	빵	3박스	30일	나눔	노숙인
31일	윤만순	김장김치	4통	11월9일~	급식	노숙인
31일	무명	김치	1박스	11월9일~	급식	노숙인


▲ 김민정 빵3박스 후원 ▲ 소망교회행복부 디지털믹서 후원 ▲ 소망교회행복부 디지털믹서 후원 ▲ 소망교회행복부 설교용마이크 후원 ▲ 소망교회행복부 보조스피커3개 후원 ▲ 소망교회 백설기2박스 후원 ▲ 무명 육개장사발면5박스 후원 ▲ 청요컨벤션 노케어96박스 후원 ▲ 조이어스교회 바나나2박스 후원
▲ 조수연 빵3박스 후원 ▲ 노아 돼지고기 6박스 후원 ▲ 에클레시아 바나나2박스 후원 ▲ 에클레시아 김2박스 후원 ▲ 구세군 라이스데이 후원 ▲ 구세군 라이스데이 후원 ▲ 무명 꽁치통조림2박스 후원 ▲ 구세군 치킨카츠2박스 후원 ▲ 이소영 파프리카2박스 후원
▲ 박명자 빵3박스 후원 ▲ 킴벗어행사 잡곡1박스 후원 ▲ 윤귀선 소금2포 후원 ▲ 홍기성 옷1박스 후원 ▲ 김마리 쌀1박스 후원 ▲ 여수현 식료품15박스 후원 ▲ 식료품15박스 후원 ▲ 식료품15박스 후원 ▲ CBS레이디스싱어즈 음료수2박스 후원
▲ 하나프라임 소고기3박스 후원 ▲ 서은주 빵3박스 후원 ▲ 무명 햅쌀2kg 후원 ▲ 김현숙 무청5박스 후원 ▲ 예수향기교회 빵3박스 후원 ▲ 윤만순 김장김치4통 후원 ▲ 무명 김치1박스 후원 ▲ 김명옥 커피 100잔분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반응하여 사역을 감당합니다.

후원받은 고기로 갈비탕을 새벽부터 오랫동안 끓였습니다. 기름이 뜨면 몇 번이고 걷어내며 깊고 맑은 국물이 나게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고기와 뼈가 저절로 분리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노숙인들이 더 먹겠다고 줄을 두 번, 세 번 섭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 고기는 대체 어디서 산 것이냐"고 물으시는 봉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영상 및 음향장비도 교체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장 큰 TV였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상대적으로 작아진 TV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숙인들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더 큰 TV로 바꾸니 잘보인다며 좋아하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빵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갈 때 두 손에는 빵을 들고 가십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보면 노숙인들이 밥 먹고 나와서 말하는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너 아까 밥 많이 먹었잖아. 그 빵 나 줘."
"안 돼~ 이거 맛있는 빵이란 말야. 네 것을 나에게 줘. 허허허"
맛있는 것 앞에서는 어른도 아이처럼 변합니다. 정겨운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같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치아가 없는 노숙들에게 뉴케어도 나눠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영양이 포함된 음료를 나누고 싶었는데 갑작스레 쌀 음료가 30박스나 생겨서 서울역 광장 전도 때 노숙인들에게 나눴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물건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양이 많아요. 가게를 정리합니다. 와서 가져가주실 수 있나요?"
마음이 갑갑해지고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갚으소서. 주님이 기억하소서.'

사무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노숙인 한분이 컵라면 2개 달라고 하십니다. 빵도 달라고 하십니다. 식사 시간에 늦게 오신 분에게는 컵라면이나 빵을 쥐어드리고 다음에는 식사시간에 오게 안내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좋을 텐데 조금 늦게 오셨네요. 일찍 오시면 식사 하실 수 있어요."
"나 방금 소중한사람들에서 점심 먹었어. 컵라면은 이따가 간식으로 먹을 거야. 더 큰 거 없어? 이걸 어떻게 들고 가? 보기에 안 좋잖아. 봉지 없어? 금요일은 빵도 주는데, 오늘은 빵은 없어?"
"아니, 식사를 하셨는데, 컵라면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 드신 분들에게 양보하셔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 노숙인이 나간 후로 곱씹어 보니,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지요. 내 자식이라면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빵도 주머니에 넣어주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봉지에도 넣어줬겠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달픈 주의 자녀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사무실에 빈 봉지 좀 여러 장 준비해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듯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 환우
이혜옥, 배윤경, 김홍덕, 임종국, 이희진, 정종순, 김병식, 남순자, 이은숙, 유미주, 박영호, 최임덕,김태우, 박예숙, 김정희, 신영달, 양희순, 진대봉, 진봉순, 고찬영, 윤두경, 이진학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구재온,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허미옥, 이윤주,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나일주, 이광미, 한치웅, 정경희, 황우진, 김수진,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권오성, 유명희, 정재윤, 서종열, 조일구, 박지현, 김예중, 최애진, 백선순, 최은영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6년 10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6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강덕희(70,000) 강덕희(250,000) 강원봉(400,000) 강지현(80,000) 구명신(200,000) 기정아(220,000)
김연진(500,000) 김영진(2,0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정미(120,000) 김진환(200,000) 도문식(300,000)
무명(비공개) 무명(400,000) 문영숙(200,000) 박수현(200,000) 박인혜(270,000) 박혜수(500,000)
성찬영(400,000) 신현정(400,000) 신형진(500,000) 안유진(270,000) 여수현(100,000) 원숙자(350,000)
유광현(300,000) 이고은(800,000) 이성웅,이한나(550,000) 이세린(300,000) 이영관(50,000) 이은주(1,000,000)
이정훈(700,000) 이주희(350,000) 이천우(100,000) 이태희(10,000) 이학재(460,000) 이황희(10,000)
임나리(650,000) 장종숙(150,000) 조미영(100,000) 최영화(100,000) 최영화(100,000) 최진옥(200,000)
최진옥(200,000) 탁란영(210,000) 탁란영(280,000) 한은숙(400,000)

●개인 감사헌금●

감사헌금(10,000) 강덕희(5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성희(50,000) 강원봉(150,000) 강원봉(100,000) 강원봉(10,000) 강원봉(10,000) 강원봉(10,000)
강윤옥(10,000) 강지현(10,000) 강지현(10,000) 강지현(10,000) 강해강(10,000) 권정연(110,000)
기정아(10,000) 기정아(10,000) 기정아(30,000) 기정아(10,000) 김갑희(40,000) 김갑희(50,000)
김갑희(10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동민(1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미영(20,000) 김병식(20,000) 김성희(30,000) 김영림(100,000)
김영미(30,000) 김영미(5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인수(40,000)
김정훈(10,000) 김지미(20,000) 김지정(2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희(30,000) 김하영(100,000) 김해강(10,000) 김행심(10,000) 김현서은평교회(2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미정(100,000) 나종숙(40,000) 노원균(30,000) 무명(2,000)
무명(20,000) 무명(50,000) 무명(10,000) 무명(33,000) 무명(32,000) 무명(30,000)
민노엘(1,000) 민리엘(1,000) 박동준(10,000) 박인희(110,000) 박봉희(50,000) 박봉희(16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세준(50,000) 박영란(2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정애(30,000) 박주현(10,000) 박진희(100,000)
박혜영(90,000) 변경자(20,000) 사시경(100,000) 서재웅(20,000) 서효숙(100,000) 석동신(3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기승(150,000) 송기승(50,000) 송기승(10,000) 송기승(10,000) 송연숙(50,000)
송연숙(56,000) 송연숙(50,000) 송연숙(50,000) 신창헌(선교헌금)(350,000) 심요엘(10,000) 양복길(13,000)
오경님(20,000) 오세엘(20,000) 오지석(100,000) 유애선(50,000) 유재학(130,000) 유정옥(10,000)
유진선(10,000) 이강혁,이강현(30,000) 이기형(20,000) 이미일(10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이한나(75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재성(50,000) 이정대(10,000) 이정훈(15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지영(10,000) 이지영(10,000) 이지영(10,000) 이지영(10,000) 이지은(10,000)
이천우(50,000) 이천우(100,000) 이천우(50,000) 이천우(50,000) 이천우(20,000) 이철호(10,000)
이태규(5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하임(2,000) 이학재(10,000)
이학재(10,000) 이학재(10,000) 이현경(60,000) 이황희(10,000) 이황희(10,000) 이황희(10,000)
임윤엽(100,000) 장자인(5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지호(50,000) 전혜영(10,000) 정윤(50,000) 정일권(50,000) 정일권(150,000) 정주연(100,000)
정천락(10,000) 조선영(3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주님께감사(10,000)
최경선(100,000) 최성애(20,000) 최성은(10,000) 최영화(10,000) 최영화(10,000) 최영희(10,000)
최원정(10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탁송미(50,000) 하태윤(3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허동욱(10,000) 허동욱(10,000) 허동욱(10,000) 허동욱(10,000) 황부영(50,000)

●교회 감사헌금●

(기감)벧엘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기쁜소식교회(5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소망교회사회봉사부(1,000,000)
소망교회사회봉사부음향장비후원(4,50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은혜의교회(50,000) 장성교회(10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CBS레이디스싱어즈(3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50,000) 사랑의센터(50,000) 세빛소(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컨피테크(100,000) ㈜창세에스앤티(5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GBP(50,000) 곽상미(4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윤혜경(40,000) 이용욱(4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추윤희(2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조연주)(40,000)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북한고아 선교헌금●

㈜GBP(5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고남균(5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소명(5,000) 석영란(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혜란(40,000) 전해봉(2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북한선교 헌금●

김영미(10,000) 김영미(10,000) 신경자(100,000) ㈜엔페이브(100,000) 이향자(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면구(40,000) 강면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노윤정(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손향(40,000) 송현주(8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재혁(40,000)
이혜란(40,000) 장요셉(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의이해(5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혜진(10,000) 서보연(10,000) 성찬영(3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하미경(20,000)

2026년 10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2026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GBP(100,000) 강금내(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고건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옥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숙(10,000) 김원태(3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의환(5,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정(80,000) 김정화(20,000) 김종력(10,000) 김종력(1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진호(20,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춘훤(50,000) 김태조(10,000) 김한나(5,000) 김행온(10,000) 김향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호진(강철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류효정(30,000) 명은자(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욱(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은(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영수(10,000) 박유림(5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웅(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은미)(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180,000) 신승우(40,000) 신은미(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희영(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복희(10,000) 유선옥(10,000) 유성욱(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만순(20,000) 윤영자(5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경희(50,000) 이공이(10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종(50,000) 이상진(2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30,000) 이순주(10,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표(5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윤미(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재룡(백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정인(50,000) 이종수(4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욱(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30,000)
이창호(50,000) 이하윤(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이(2,000)
임영환(30,000) 임윤엽(5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국영(5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애영(20,000) 전영선(1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해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2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시원(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성경(30,000) 홍영희(5,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1, 팩스 031-582-0199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일반헌금계좌는 농협 351-7195-3045-83 으로 하시면 됩니다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1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 명	(남, 여)	이 메 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 목적지정 안함 ☐ 노숙인 사업 ☐ 노숙인 교회 ☐ 암 환우 힐링센터 **해외고아 1:1 결연 (4만원)** ☐ 미얀마 ☐ 아이티 ☐ 멕시코 ☐ 중국 ☐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 일시후원 ☐ 정기후원
	후원방법	☐ 자동후원(CMS) ☐ 직접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		
CMS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 6일 ☐ 16일 ☐ 26일	통장구분	☐ 개인통장 ☐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